

CONTENTS

Special Theme

나의 삶, 나만의 콘텐츠

People

前 사우스웨스트 항공 대표 허브 켈러허

Pentaz Hotel

Blue in Summer

La Goutte

Delicious Summer

THE CLASSIC 500

HIGH CLASS SENIOR SOCIETY
PENTAZ HOTEL MEMBERSHIP MAGAZINE

2018 Summer Vol. 35



01 EYES

독학 예술가 니키 드 생팔
역경도 삶의 콘텐츠가 된다

02 SPECIAL THEME

나의 삶, 나만의 콘텐츠

04 CONTENTS · STORY

풍성한 경험이 콘텐츠를 만든다

06 CONTENTS · PEOPLE

편(fun)한 경험을 비즈니스하다
前 사우스웨스트항공 대표 허브 켈러허

10 CONTENTS · INTERVIEW

평생 소유할 수 있는 나만의 저축, 바둑
부부가 함께 즐기며 일상의 행복을 누린다!

14 CULTURE

‘더 킹스 싱어즈’ 창단 50주년 기념 내한 공연

16 TRAVEL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속살,
숨겨진 세상을 만나는 은밀한 시선

22 GOURMET

라비앙로즈 손성모 소믈리에가 추천하는
여름에 즐기는 와인 리스트

24 PENTAZ HOTEL

Blue in Summer

30 FACILITY

도심 속 오아시스
Pentaz Hotel Sky Pool

32 LA GOUTTE

Delicious Summer

38 COMMUNITY 1

더 클래식 500 자원봉사단의
‘함께’라는 이름의 행복 여행

42 COMMUNITY 2

꽃보다 청춘!
일본의 북알프스, 알펜 루트 3박 4일 여행기
‘봄날, 순백의 대자연을 마주하다’

46 CALENDAR

커뮤니티 주요 소식 및 활동 캘린더

48 NEWS

더 클래식 500 소식

THE CLASSIC 500

high class senior society
pentaz hotel membership magazine
2 018 summer vol. 35

‘더 클래식 500’은 학교법인 건국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고품격 시니어 타운과 호텔로 고객들에게 최고의 서비스와 감동을 선사합니다.
<더 클래식 500 MEMBERSHIP MAGAZINE>은
계간으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니키 드 생팔과 장 팅겔리의 합작품 '스트라빈스키 분수', 1982년 ©2013 Photo by Leonardo Malaguti

독학 예술가 니키 드 생팔 역경도 삶의 콘텐츠가 된다

예술은 조개 속 진주처럼 고통과 상처 속에서 탄생한다. 20세기 최고의 조각가 니키 드 생팔(Niki de Saint Phalle, 1930~2002)은 그 말을 상징하는 예술가다. 최고라는 찬사를 얻기까지 그녀의 삶은 불행의 연속이었다. 1929년 세계 대공황 때 아버지가 부와 명예를 한순간에 잃자 니키 드 생팔은 태어난 파리를 떠나 미국 뉴욕으로 이사했다. 아름다운 외모로 10대 후반에 잡지 <하퍼스 바자>, <보그> 모델이 되기도 했지만, 학교에 있는 그리스 조각상의 국부 가리개 부분을 진한 붉은색으로 칠했다는 이유로 퇴학당했다. 그리고 부모를 떠나 외조부모와 3년을 살기도 했다. 20대 초반에는 신경쇠약에 시달려야 했다. 위태로웠던 그녀의 삶은 어릴 적 아버지와 가정교사에게 성폭행을 당한 트라우마가 원인이었는지 모른다. 자존감은 산산조각이 나고 외로움과 불안감에 휩싸였을 것이다. 감당하기 어려운 경험을 연거푸 겪는 동안 아이러니하게도 니키 드 생팔의 예술적 감성은 무르익어 갔다. 신경쇠약을 치유하기 위해 그리기 시작한 그림이 그녀가 겪은 고통을 위로받고 예술로 승화시키는 통로가 된 것이다.

니키 드 생팔은 1960년대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유럽에서 유행하던 누보 레알리즘 운동을 시작했다. 그녀는 두 번째 남편인 조각가 장 팅겔리(Jean Tinguely, 1925~1991)와 만나면서 예술가로서 날개를 활짝 펴게 된다. 키네틱 아트(관람자 또는 관객에 의해 움직이는 예술 작품) 대가인 팅겔리의 영향력 으로 창의성과 상상력을 바탕 삼아 자유분방하게 표출되던 그녀의 예술혼은 현실 속 작품으로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다. 관객에게 물감 주머니를 쏘게 한 '슈팅 페인팅', 풍피두 센터의 움직이는 조각품 '스트라빈스키 분수', 풍만한 체형의 여인을 다양한 자세로 그린 연작 '나나' 등은 니키 드 생팔을 세계적인 예술가로 만들었다. 아픔과 슬픔으로 얼룩진 시간은 상처가 아닌 예술가의 뜨거운 에너지가 되어주었다.



자기소개를 시작해볼까요?

고향과 학력, 직업, 나이가 나라는 존재를 설명하는 전부는 아닐 것이다.
살아온 시간, 쌓아온 경험이 진짜 나를 만드는 재료가 되어야 한다.
자신에게 관심을 쏟고 다채로운 경험을 축적하다 보면
나만의 관점을 가지게 되고 나만의 사유를 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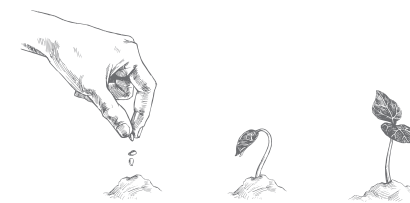
어디선가 읽은 근사한 문구나 타인의 이야기가 아닌
진짜 내 것을 갖는 일!

즉 나만의 콘텐츠를 만드는 일은
자신의 삶을 소중하게 대하는 순간, 시작된다.



풍성한 경험이 콘텐츠를 만든다

4차 산업혁명이 새로운 경제 개념으로 '경험경제'를 호출했다. 자신만의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사람과 대화하고 공감하는 인류가 있고, 그들이 만드는 콘텐츠가 환영받는 세상이다. 그러나 오로지 변화의 욕망을 위해 경험한다면 '변화 없는 반복'처럼 어떤 경험으로도 삶의 허기를 채울 수 없을 것이다. 오직 뜨겁게 통과한 경험만이 생명력 있는 콘텐츠로 남을 것이다.



그제는 블로그에서 발견한 간단 레시피로 물 없이 3일 만에 오이지를 완성, 오이냉국을 만들어 식탁에 올렸다. 바쁜 세대가 만들어낸 방법일 텐데, 끓인 소금물을 일일이 식혀 향아리에 붓지 않아도 되고 맛까지 좋아 종종 이 레시피를 이용할 생각이다. 이렇게 사소하지만 자신의 경험을 콘텐츠로 만들어 세상과 소통하는 이가 많다. 이뿐 아니라 농사, 재무, 의학 등 전문성 있는 영상 콘텐츠를 주기적으로 유튜브에 올리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다. 오랜 운동 경험을 단행본으로 출간해 작가로 데뷔한 선배도 있다. 그런데 이들의 분주함이 여간 고마운 게 아니다. 이들의 경험이 믿음과 전문성을 담보로 동시대 사람들과 공유되고 회자되고 있어서다.

온라인과 테크놀로지에 의존하는 디지털 시대에 소비자는 '경험'을 갈망한다. 풍요의 시대를 지나면서 그동안 물건을 살 만큼 샀고 가질 만큼 가졌지만 그럼에도 만족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렇다. 경험은 다르다. 경험은 물건보다 훨씬 기억할 만하며 더 큰 만족을 오랫동안 제공하니까. 이미 많이 가진 상황에서 또 물건을 사는 일의 의미 없음을 깨달아서일까. 자신만을 위해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려는 사람들에게 경험의 풍요는 성공을 의미한다. 이때 소비자들이 차별화된 경험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가치를 두는 경제 개념이 경험경제다. 새로운 경제 개념이 출현한 배경에는 세 가지 요인이 있다. 첫째, SNS가 대중적으로 확산되면서 남들이 하기 어려운 경험을 공유하는 일에 가치가 모아졌다. 둘째, 밀레니얼 세대(16~36세)를 통해 물건을 소유하던 것에서 대중에게 경험을 자랑하는 것으로 소비 패턴이 바뀌었다. 셋째, 'You Only Live Once'의 축약어인 YOLO 트렌드 시대로 접어들었다. 현재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요시하는 소비 태도가 경험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덕분에 주류, 외식, 휴가, 관광 등 세대에 구분 없이 경험에 지출하는 모습이다.

경험경제 역시 럭셔리 수위를 선택할 수 있다. SNS를 통해 헬기 관광, 미술관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등 경험을 공

유한다. 지난봄 머느리가 고가의 스텔라 매카트니 드레스를 3일간 대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라며 사진을 포스팅한 사람이 있었다. 이렇듯 소유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밀레니얼 세대의 라이프스타일은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유럽 젊은이들 사이에서 가격의 10~20% 비용으로 돌체앤가바나, 알렉산더 맥퀸, 크리스토퍼 케인 등의 명품 드레스를 대여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이제 사람들은 드레스를 소유하는 것보다 드레스를 입는 순간을 기억하고 즐기는 체험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

프라다, 불가리, 샤넬, 랄프로렌 등 패션 하우스와 결합한 럭셔리 다이닝이 꾸준히 화제를 모으고 있다. 주얼리 메종 창립자이자 디자이너 잠피에로 보디노 역시 주얼리를 구매하는 순간과 과정, 경험을 최고로 만들기 위해 1930년대 공간을 마련했다. 이 밖에도 라이브 이벤트와 브랜드를 경험하는 데 중점을 둔 화려한 플래그십 스토어와 잇 백 대신 아프리카에서 사파리를 즐기고, 지중해에서 돌고래와 나란히 수영하거나 이국적인 곳에서 하이킹을 하려는 사람들이 차고 넘친다. 이제 우리는 어떤 운동화를 샀는가보다 어디에 다녀왔는지에 더 관심을 갖고 듣고 싶어 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소유를 일종의 낡은 사고로 여기는 현실에서 이제 나만의 경험은 특별해졌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가치 있는 경험일까. 오늘 편지봉투에 넣어 보관하던 봉숭아 씨앗을 꺼내 땅에 묻었다. 우리는 저마다 한 생(生)을 묵묵히 관통하며 크고 작은 경험을 한다. 이 경험을 품고 매 순간 변화를 몸으로 받아들인다. 사계절은 항상 변함없이 돌아오는 것 같지만 똑같은 적이 없다. 몸이 자라고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다. 씨앗 역시 매년 땅에 뿌리를 내리고 다시 씨앗이 될 때까지 이 같은 경험을, 기록을 몸에 새긴다. 인류에게 종자가 소중한 이유와 뜨거운 여름 속, 비로소 생겨나는 씨앗의 의미를 생각한다. 그 어떤 경험도 '변화 없는 반복'에 그친다면 좋은 콘텐츠(씨앗)로 세상에 남을 수 없을 것이다.

편(fun)한 경험을 비즈니스하다

前 사우스웨스트항공 대표
허브 켈러허

Herb Kelleher

어느 날 한 공항에서 사우스웨스트항공 비행기를 기다리던 탑승객들에게 출발 지연을 알리는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그러나 탑승객들은 짜증을 낼 틈이 없었다. 곧바로 이어진 방송 때문이었다.

"비행기 출발 지연으로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이에 대한 보답으로 지금부터 보물찾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공항 내에 매직펜으로 동그라미 표시를 한 1달러짜리 지폐 세 장을 숨겨놓았습니다. 이 지폐를 찾아오시는 탑승객에게는 상금 200달러와 공짜 비행기 표를 한 장씩 드리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시작!"

탑승객들은 공항 구석구석을 뒤지면서 신나게 보물찾기를 시작했다. 출발 지연에 대한 불평은 눈 녹듯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지금 우리 비행기는 방향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목적지에는 매우 일찍 도착할 예정입니다."

미국 사우스웨스트항공을 이용하면 유머러스한 이벤트와 엉뚱한 안내 방송을 종종 접하게 된다. 사우스웨스트항공 창업자인 허브 켈러허가 주도한 '편(fun) 경영' 때문이다. 켈러허는 미국에서 가장 웃기는 괴짜 경영자로 꼽힌다. 백발의 그가 팝 스타 엘비스 프레슬리 복장으로 공항에 나타나 직원과 탑승객들에게 농담을 던지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그는 "유머는 조직의 화합을 위한 촉매제다. 일은 즐거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괴짜 사업가 켈러허의 경영 실적이 실로 놀랍다. 1971년 사우스웨스트항공을 창립한 그는 1973년부터 지금까지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비행기 세 대로 시작한 영세 항공사는 매출 기준 미국 4대 항공사로 성장했다. 전문가들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우스웨스트항공의 조직 문화와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경영 전략이 성공을 이끌었다고 평가한다.

1997~2005년 '미국에서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 5위권, 고객 불만이 가장 적은 회사, 40년 이상 연속 흑자 달성, 이직률이 10%도 안 되는 회사, 1972년 1만 달러의 투자 가치가 현재 1000만 달러 이상이 되는 곳, 창사 이래 해고 정리가 전무한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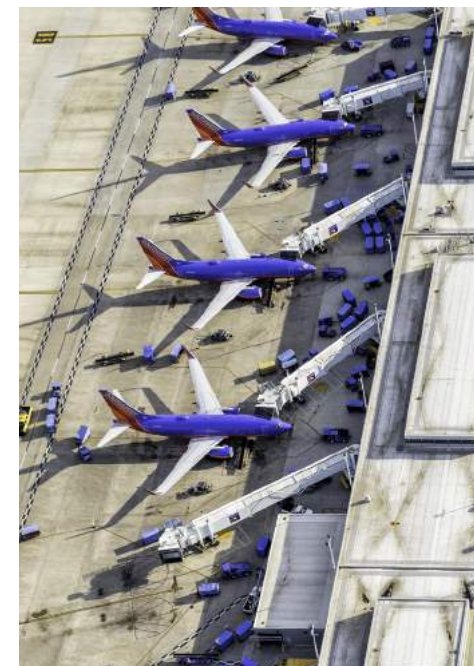
고속버스보다 저렴한 비행기 요금을 현실화한 사우스웨스트항공(South West Airlines)을 가리키는 말이다. 편(fun) 경영의 교주, 허브 켈러허 전 사우스웨스트항공 대표를 소개한다.

평등 그리고 사람의 마음

1931년 뉴저지주에서 태어난 켈러허는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 그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일하던 공장에서 용돈을 벌며 책임감을 배웠다. 어머니는 어린 켈러허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특히 사람을 지위와 상관없이 평등하게 대하는 일이 중요하며 진정성 있는 마음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켈러허는 한 인터뷰에서 "지위나 직함은 사람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어머니 말씀이 평생의 가르침이 됐고, 직원을 고객처럼 여기는 사우스웨스트 정신의 기본이 됐다"고 말했다.

한 예로 사우스웨스트에서는 조종사들이 탑승객의 짐을 올려주거나, 휠체어를 실어주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조종사들이 웃음을 짓고 기내 청소를 도와주기도 한다. 부서 간 건강한 협력 문화가 정착된 것이다. 이처럼 사우스웨스트는 업무 기능 간에 서열이 존재하지 않는 유일한 곳이다. 부서 간 평등 관계는 항공업계는 물론 전 세계의 다른 어떤 직종에서도 유례가 없는 일이다. 켈러허는 웨슬리언대학교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뉴욕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한 뒤 뉴저지주 대법원에서 재판 연구원으로 일하며 법조인으로서 경력을 쌓았다. 그 후 아내의 부탁으로 처가가 있던 텍사스주로 자리를 옮긴 그는 기업 전문 변호사로 법무 법인 임원에 오르는 등 성공 가도를 달렸다. 그러던 중 법률 자문을 의뢰한 사업가 롤린 킹을 만난다. 당시 텍사스주는 경제 발전으로 인구가 늘어나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항공이 필요했다. 사우스웨스트항공의 밑그림이 시작된 것이다. 사우스웨스트항공 창업주 허브 켈러허는 말했다.

"회사 수익 걱정은 하지 마라. 고객 서비스만 생각해라. 내게는 고객보다 직원이 최우선 순위다. 첫 번째가 직원, 고객은 두 번째, 주주는 세 번째다."



저가 항공으로 시장 장악

켈러허는 불필요한 서비스를 줄여 저렴한 항공편을 만들면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켈러허가 비행기 세 대만으로 사우스웨스트항공을 창업해 댈러스, 휴스턴, 샌안토니오 등 텍사스주의 주요 3개 도시만 운행하겠다고 하자 항공업계에선 무모한 도전이라며 코웃음을 쳤다. 하지만 그는 남과 다른 생각이 성공을 이끈다는 신념으로 실행에 옮겼다.

1973년, 사우스웨스트항공은 좌석, 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비행기 표를 13달러에 판매했다. 당시 미국 서민이 비행기를 탈 기회는 거의 없었기에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면밀히 관찰한 뒤 이들이 혹할 만큼 최대한 낮은 요금이었다. 27달러 수준이던 경쟁사보다 훨씬 낮은 가격의 사우스웨스트항공 좌석은 연일 매진이었다. 선착순 탑승에 기내식 등 서비스가 부재했지만 사우스웨스트를 이용한 사람들은 저렴한 가격과 하모니카를 불며 안전벨트 매는 방법을 설명하는 유쾌한 승무원 등에 매료되었다. 고객들의 입소문은 퍼져나갔고 회사는 성장 가도를 달리기 시작했다.

켈러허는 수익성이 좋은 500마일(약 800km) 이내의 노선에만 초점을 맞췄다. 그리고 비행기도 보잉 737기 한 가지 기종만 보유해 조종사 훈련부터 정비에 이르는 각종 비용을 절감했다. 그뿐 아니라 항공기가 착륙한 뒤 다시 이륙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 비행기 한 대당 수익성을 높였다. 탑승권 자동 발매기를 통해 탑승 수속 시간을 줄였고, 복잡한 허브 공항 대신 한가한 지방 공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고객들이 여유롭게 여행을 즐길 수 있게 하는 한편 공항 사용료를 감축했다.

즐거워 일터, 직원이 왕이다

켈러허의 편 경영은 직원을 왕으로 모시는 사우스웨스트의 독특한 기업 문화를 만들었다.

“회사가 직원을 왕처럼 모셔야 직원이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많은 기업이 종교적 신념처럼 믿고 있는 ‘고객은 왕’이라는 말은 틀렸다. 기내에서 폭음하고 직원을 괴롭히는 불량 고객은 과감히 거부해야 한다.”

실제로 켈러허가 재임하는 동안 고객관리팀에 계속 항의만 하는 ‘블랙 컨슈머’가 나타나자 그는 단호하게 메일을 보냈다.

“고객님이 그림겠지만, 잘 가시라.”

직원들이 감동한 것은 당연했다. 사우스웨스트의 성공을 살펴보면 ‘직원들이 행복해야 고객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철학이 모든 업무에 일관되게 적용된다. 그는 직원들을 즐겁고 행복하게 하는 데 회사의 에너지를 집중한다. 직원들의 이름과 개인사를 많이 기억하고 있다가 생일 파티를 열어주고, 직접 축하 노래도 불러준다. 사우스웨스트의 사무실은 온통 직원들의 가족사진으로 도배되어 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축하할 일이 있으면 함께 기쁨을 나눈다. 그 결과 직원들은 자연히 직장의 중요한 일부라는 자존감을 갖게 되었다. 늦은 밤 비행기 정비를 마칠 때쯤 백발

의 CEO가 맥주를 들고 불쑥 나타나 갈증을 풀어준다고 생각해보라. 그런 경영자를 직원들은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했다. 한번은 켈러허의 생일에 직원들이 일간지 <USA 투데이>에 감사의 글을 전면 광고로 실은 적도 있다. 사우스웨스트 직원들은 ‘오늘은 어떤 재미있는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출근했다. 덕분에 사우스웨스트는 ‘일과 재미’가 동시에 가능한 직장이라는 평가를 받게 됐다.

켈러허는 또 직원들에게 ‘업계 1위’ 같은 거창한 말로 성과 달성을 독촉하지 않았다. 대신 직원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로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소통했다. 예를 들어 지상운영팀에는 “지상 대기 시간을 45분에서 15분으로 줄이자”고 실현 가능한 목표를 제시하는 식이었다. 당시 사우스웨스트항공은 비행기가 지상에서 머무는 시간이 너무 길어 운항 횟수가 하루 평균 10회에 불과했다. 대기 시간을 줄이면 이 횟수가 14회로 늘어나 더 많은 수익 창출을 기대할 수 있었다. 직원들은 부서 구별 없이 정보를 공유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데 발 벗고 나섰다. 사우스웨스트항공은 비교적 급여가 적은 편인데도 미국에서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그리고 세계 최초로 저비용 항공(LCC) 개념 도입, 미국 국내선 1위 등의 성과를 올렸다. 괴짜 CEO의 탁월한 소통 능력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다.

목표를 공유한다

공항에 가면 사우스웨스트에서만 볼 수 있는 진귀한 풍경이 있다. 출국을 앞두고 승무원들이 바쁘면 기장이 나와 게이트에서 승객을 맞이하고, 발권 업무 담당자가 기꺼이 수하물 나르는 일을 돕는다. 직원들은 회사를 위해서라면 정해진 근무 거리 외에 약 3~15km까지 더 근무한다. 그런데 강제성이 전혀 없다. 회사 역시 직원들을 위해서 애쓴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흔쾌히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직원들의 자발성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도드라지게 나타난다. 기상 문제로 출발 시각이 지연되면 직원들이 지루해하는 탑승객과 즉석에서 재미있는 놀이를 한다. 사우스웨스트의 관리자, 감독관, 일선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자신에게 제일 중요한 목표는 안전, 비행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일, 그리고 고객을 만족시키는 것이라고 주저 없이 말한다. 사우스웨스트에서는 이런 목표를 직원 모두가 공유한다.

문제가 발생하면 사우스웨스트항공 직원들은 공동의 목표를 갖고 해결하는 저력을 발휘한다. 9·11 사태가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각 모든 항공기의 비행이 임시 중단되었을 때의 일이다. 근처 공항에 비상착륙을 했는데 승객 중 몇몇은 호텔에 투숙할 만큼 돈을 갖고 있지 않았다. 이때 사우스웨스트항공 승무원들은 탑승객을 위해 직접 호텔을 알아보고, 자신의 신용카드를 탑승객의 객실 비용을 대신 치렀다. 심지어 탑승객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열차 티켓을 사주기도 했다.

이처럼 사우스웨스트 직원들은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회사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사우스웨스트항공은 설립 이후 걸프전과 9·11 사태 등으로 힘든 순간이 많았지만 한 번도 정리 해고를 하지 않았다. 꾸준한 흑자 경영을 통해 보유 현금을 늘리고, 직원들 역시 보너스를 반납하는 등 회사와 고통을 분담했기 때문이다. 사우스웨스트항공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은 것은 최고 경영자의 유연한 편 경영 철학과 직원들의 애사심이 있기에 가능했다.



© 2016 Business & Finance All rights reserved.

“사우스웨스트항공이 직원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처럼, 직원들도 관심과 존경, 보살핌의 정신으로 고객과 함께할 것입니다.”

사우스웨스트항공의 사명 선언문 맨 마지막 구절에서 허브 켈러허 회장의 ‘직원’과 ‘고객’에 대한 철학을 엿볼 수 있다. 직원이 행복해야 고객이 행복하다.



평생 소유할 수 있는 나만의 저축, 바둑 부부가 함께 즐기며 일상의 행복을 누린다!

흑돌과 백돌이 부딪친다.
'집'을 많이 지으려는 흑백의 대결은 정적이지만 치열하다.
어느 스포츠 못지않게 흥미진진한 승부를 가리는 바둑을
공동의 취미로 삼아 즐기는 부부가 있다.
오랜 시간 운명 공동체로 살아온 부부의
오붓한 시간을 들여다보았다.

더 클래식 500
김태환·박경숙 부부 회원



머리와 손가락을 사용하는 종합 스포츠, 바둑

창박으로 초여름의 신록이 눈부신 날, 더 클래식 500의 게임룸에서 김태환·박경숙 부부를 만났다. 여든을 훌쩍 넘긴 동갑내기 부부는 고운 미소와 편안한 얼굴이 나이를 무색케 했다.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 사이인 부부는 바둑이라는 공동의 취미를 즐기고 있다. 바둑을 먼저 시작한 건 의외로 아내인 박경숙 회원이다.

남편 김태환 회원 역시 어르신들이 사랑채에서 바둑을 두는 모습을 익히 보며 자라왔던 터라 부부에게 바둑이 친근하게 느껴졌던 모양이다. 일부러 바둑을 배우러 학원에 다니거나 기원을 찾은 적은 없다. 바둑책을 옆에 두고 천천히, 조금씩 여유로운 시간에 바둑돌을 집어 들었다. 50여 년간 꾸준히 바둑을 둘 수 있었던 것은 바둑의 묘한 매력 때문이다.

"바둑은 단순한 놀이가 아니에요. 머리를 쓰고 손가락을 사용하는 종합 스포츠입니다. 흥미진진한 게임이라고 할 수 있지요."

천재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바둑 명에 초단이었다고, 세계적인 부호인 마이크로소프트 설립자 빌 게이츠는 바둑 세계 챔피언이 되는 꿈을 가졌었다고 하는 걸 보면 바둑이 사람의 마음을 끄는 건 분명한 듯하다. 김태환 회원은 몸과 마음의 건강을 증진하는 요체로도 바둑이 가치 있다고 느낀다.



“바둑은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금세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자신감만으로도 부족하지요. 세상살이도 마찬가지죠?
 누구나 금방 성공하진 않잖아요.
 시간을 두고 수양하면서 성장해나가는 게 바둑이에요.
 그만큼 성취감이 큼니다.”



바둑은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하는 스승

가로 19줄과 세로 19줄이 수직으로 교차하고, 바둑돌을 놓는 착점은 361곳이다. 반듯한 격자무늬의 바둑판 위에서는 인생의 축소판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법한 다채로운 이야기가 펼쳐진다. 바둑과 함께한 시간이 길어질수록 새록새록 느끼는 감정이다.

“바둑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고 품위와 예의를 존중합니다. 마치 인생 역정의 이치와도 같습니다. 무수한 묘수와 지혜의 산실이기도 하지요. 희로애락과 흥망성쇠가 모두 담긴 우리네 삶의 마당과도 같습니다.”

문외한의 눈에는 정적이고 때로는 무료해 보이기까지 한 바둑의 이면에는 이토록 생생하고 치열한 세계가 담겨 있는 것이다. 박경숙 회원은 바둑을 통해 여전히 인생을 배운다며 미소를 짓는다. 부부는 더 클래식 500에 입주할 때 바둑 동호회가 운영되고 있고, 바둑을 둘 근사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더욱 반가웠다. 바둑의 가치를 체감한 부부이기에 이러한 좋은 환경 속에서 남녀노소 누구라도 바둑을 시작해보길 원하는 마음이 크다. 자신이 살아 있다는 생동감을 느낄 수 있고 친구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해서다. 바둑을 두는 순간 오고 가는 말은 많지 않지만, 상대와는 속내를 나눈 듯 깊이 있고 가까운 친구가 된다는 것. 부부나 친구끼리 함께 즐기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일이다.

바둑 이야기를 마치고 돌아가는 부부의 모습을 보니 서로 없어서는 안 될 흑돌과 백돌을 닮아 있었다.





세계 최고 아카펠라 그룹이 선사하는 천상의 목소리
‘더 킹스 싱어즈(The King’s Singers)’
창단 50주년 기념 내한 공연

지난 5월 16일, 영국이 사랑하는 세계 최정상 아카펠라 그룹 ‘더 킹스 싱어즈’의 특별 콘서트가 열렸다. 창단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GOLD 시즌 세계 투어로 준비한 한국 공연이었다. 천상의 목소리에 담긴 뛰어난 음악성과 한국 팬을 위한 마음이 더해진 감동의 무대를 만나보자.

“이번 한국 공연은 오래 기억에 남을 듯합니다. 특히 공연 기간 동안 머문 더 클래식 500 펜타즈 호텔이 넓고 쾌적해서 멤버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한국 관객에게 좋은 공연을 선물하고 돌아갑니다.”

About

더 킹스 싱어즈

자신들만의 독창적인 소리를 세상에 들려주기 시작한 지 반세기를 맞은 더 킹스 싱어즈. 그동안 런던 로열 앨버트 홀,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뉴욕 카네기홀 같은 세계 최고의 무대에 초대받았고, 두 번의 그래미 어워드와 에미 어워드를 수상하며 입지를 굳건히 다져왔다. 지난 2013년 그라모폰 매거진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며 음악적 성과에 대한 공도 인정받았다. 50년이 지난 현재는 처음과 멤버도, 소리도 변했지만 미래를 위한 비전과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관객에게 음악의 생명을 불어넣는 음악적 가치는 변함없이 이어가고 있다.

특색 있는 풍부한 울림의 아카펠라 선구자, 더 킹스 싱어즈

“뛰어난 음악성과 청중을 사로잡는 무대 매너는 아직까지 그들을 따라올 자가 없다.”
 -<런던 타임스>

“최고라는 수식어 외에는 이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워싱턴 포스트>

세계 유명 언론의 극찬은 과장이 아니었다. 지난 5월 16일 창단 50주년을 기념해 진행한 GOLD 시즌 세계 투어의 일환으로 한국 무대에 오른 더 킹스 싱어즈의 노래는 가히 천상의 목소리에 비견할 만했다. 공연장을 찾은 청중은 더 킹스 싱어즈 멤버 한 명 한 명이 악기가 되어 들려주는 아름다운 하모니에 귀를 기울이며 아카펠라의 매력에 빠져들었다.

더 킹스 싱어즈는 악기 없이 사람의 목소리만으로 노래하는 아카펠라의 선구자적 아티스트로 평가받는 팀이다. 1968년 5월에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킹스 칼리지를 갓 졸업한 6명의 합창장학생이 의기투합해 팀을 만들었다. 이후 현재까지 음악적 맥을 이어오며 투명한 사운드,



정제된 음색, 완벽한 하모니의 뛰어난 음악성과 유쾌한 퍼포먼스로 세계의 청중을 매료시켜왔다. 더 킹스 싱어즈의 가장 큰 매력은 특색 있는 풍부한 울림의 소리다. 카운터테너 두 명, 테너 한 명, 바리톤 두 명, 베이스 한 명으로 저음 파트와 고음 파트의 비율을 맞춘 이례적인 구성으로 사운드를 편성했다. 이렇게 완성한 그들만의 독창적인 음색은 현재까지 같은 구성을 통해 이어오고 있다.

더 킹스 싱어즈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그들만의 것으로 독특하게 ‘조리’해 들려준다는 점에서도 높이 평가받는다. 클래식 음악부터 대중음악을 비롯해 흑인 영가, 민요까지 그들만의 특색을 담은 노래에 영국적인 매력과 음악적 기술을 더해 전 세계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한국 팬을 위한 배려가 돋보인 아름다운 하모니의 힐링 공연

더 킹스 싱어즈의 이번 한국 공연은 지금까지 공연한 무대에서 선보이지 않은, 창단 50주년을 위한 특별한 노래로 준비해 의미가 깊었다. 장르도 다채로워 가족, 부활의 기쁨, 여행자, 철학자 등 열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한 곡들을 소

개했다. 카미유 생상스의 ‘케르모르의 선원들 (Les Marins de Kermor)’ 같은 클래식한 곡부터 비틀스의 ‘그리고 난 그녀를 사랑해요 (And I love Her)’와 ‘오블라디 오블라다 (Ob-La-Di, Ob-La-Da)’가 같이 대중에게 친숙한 노래, 현존하는 현대음악가 도루 다케미치의 ‘손으로 만든 잠언 (Handmade Proverbs)’ 등 때로는 미사곡과 같은 장중한 아름다움을, 때로는 함께 즐기는 행복감을 선사했다.

한국에서 마련된 무대이니만큼 한국 관객을 위한 배려도 곳곳에서 느껴졌다. 공연을 시작할 때 베이스 조너선 하워드가 한국말로 인사한 것을 비롯해 공연 중간중간에 다소 어색하지만 한국어로 관객과 소통하는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민요의 사랑 파트에서는 ‘아리랑’을 노래해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영혼 깊숙이 울림을 전하는 더 킹스 싱어즈의 ‘아리랑’은 감동 그 자체였다. 마지막을 장식한 앙코르 무대에서는 더 클래식의 ‘마법의 상’을 한국어로 불러 아이돌 콘서트장을 방불케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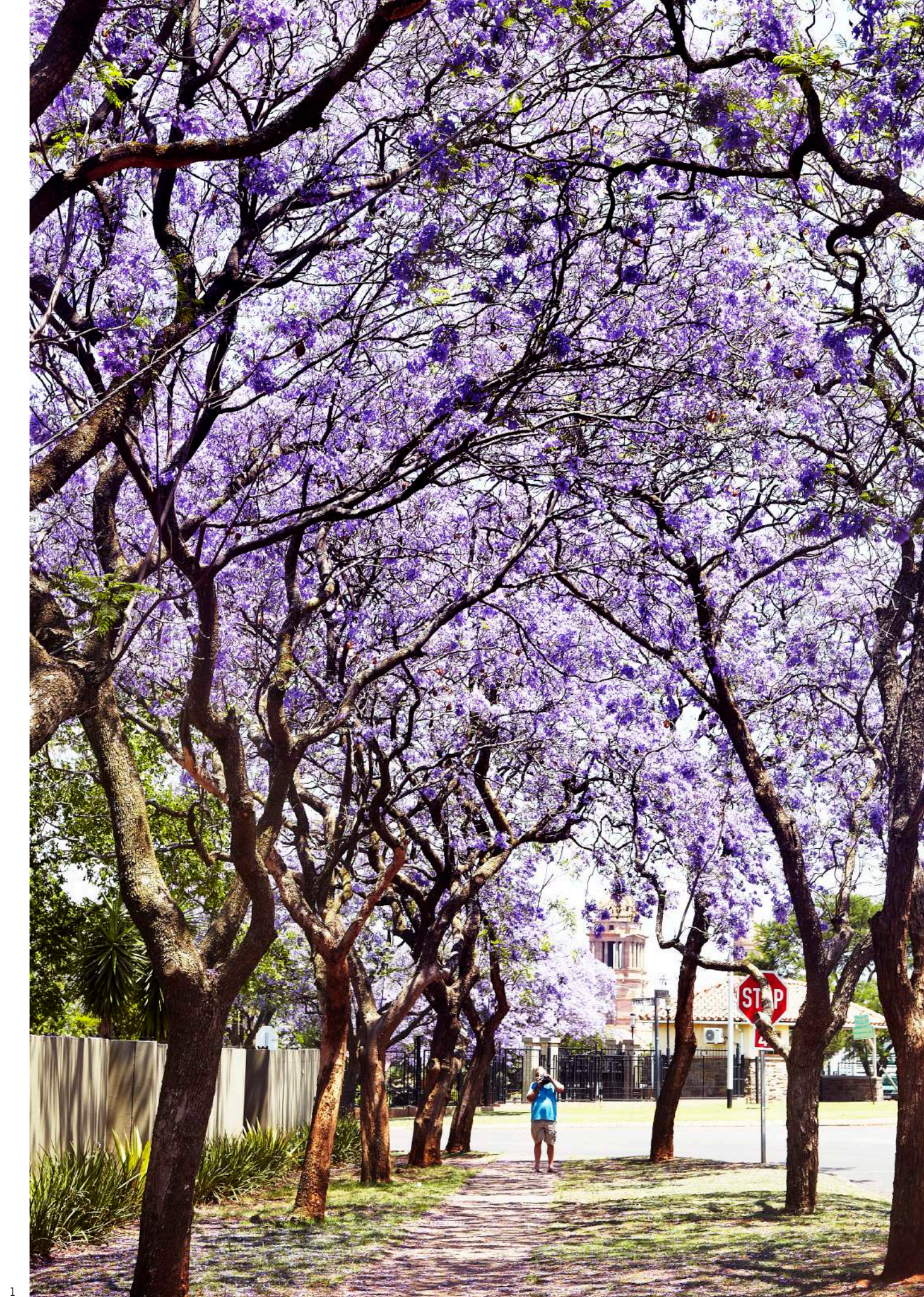
단 한 번으로 끝난 점이 아쉽지만, 이번 공연은 50년만 더 킹스 싱어즈를 사랑해온 한국 팬들에게 음악을 통한 모험과 행복을 만끽할 수 있는 소중한 선물이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속살, 숨겨진 세상을 만나는 은밀한 시선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예상과 짐작을 뛰어넘는 매력적인 나라다. 블루 트레인(Blue Train)은 세상에서 가장 호화로운 열차 여행을 경험하게 해주고, 인공과 자연이 어우러진 케이프타운 안팎은 볼거리가 차고 넘친다. 그리고 남아공 남단을 횡으로 가로지르는 환상의 드라이브 코스, 가든 루트에는 야생의 생명력이 충만하다.

남아공의 행정 수도 프리토리아(Pretoria)는 첫인상부터가 화사했다. 프리토리아에만 무려 550만 그루나 심어진 자카란다(Jacaranda)가 합창하듯 일제히 꽃을 피워 도시 전체에 보랏빛이 넘실거렸다. 거리에 드리워진 나무 그림자에서도 보랏빛 향기가 나는 듯했다. 프리토리아에서 케이프타운(Cape Town)을 가기 위해 탑승한 '1박 2일 열차' 블루 트레인(Blue Train)은 '바퀴 위의 궁전'이라는 별칭에 걸맞게 시설과 서비스 면에서 탁월했다. 객실은 널찍하고, 레스토랑의 음식은 준수하며, 스태프는 항상 웃음을 머금은 채 기민하게 움직인다. 종착역에 다다를 때까지 차창 밖으로는 변화무쌍한 남아공의 풍광이 상영된다.

- 1 남아공의 행정 수도 프리토리아에는 보랏빛 꽃이 아름다운 자카란다가 550만 그루나 있다.
- 2 호화 열차의 대명사, 블루 트레인.
- 3 블루 트레인의 다이닝 카. 일류 레스토랑 못지않은 정찬 요리를 선보인다.
- 4 블루 트레인 차창 밖으로 펼쳐진 전원 풍경. 케이프타운에 도착할 때까지 남아공의 다채로운 얼굴을 만나게 된다.



1



2



3



4

새로운 자연과의 조우

블루 트레인인 미각 체험 공간이기도 하다. 식사는 물론이고 간식과 주류까지 무제한 이용이 가능하다. 클럽 카에서 우리의 육포와 비슷한 빌통(biltong)에 맥주를 홀짝였고, 라운지 카에서는 애프터눈 티를 마시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다.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는 정겨웠다. 기차 여행이 주는 안락함과 낭만이 초면의 어색함을 거두어가버렸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객실로 돌아오니 소파가 침대로 변해 있었다. 기차의 규칙적인 흔들림을 베개 삼아 까무룩 잠이 들었고, 이튿날 눈부신 아침 햇살에 눈이 떠졌다. 기차가 캠퍼 댐 부근을 지날 때 얇은 물에 발목까지 다리를 담고 있는 플라밍고 떼가 인사를 건넸고, 헥스리버 밸리(Hex River Valley)를 통과할 때는 푸른빛이 성성한 포도밭에서 달콤한 향기가 풍겼다.

5



6



7



8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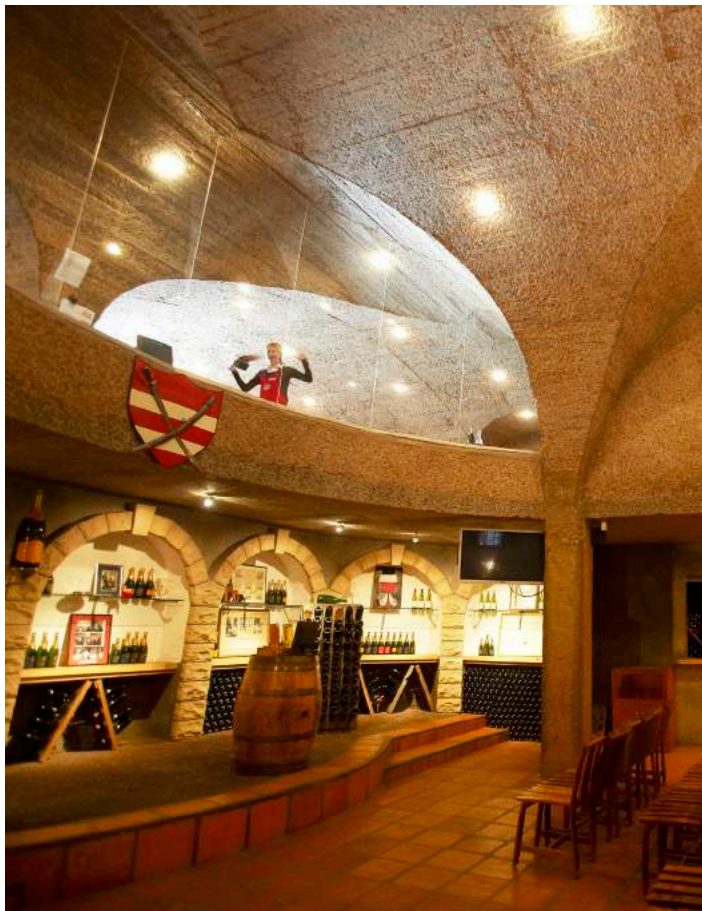
블루 트레인이 남아공 최고의 관광도시 케이프타운에 도착했다. 젊음의 거리 롱 스트리트(Long Street)와 항구를 상업 지역으로 활성화한 워터프런트(Waterfront)는 케이프타운이 왜 '아프리카 속 유럽'으로 불리는지 깨닫게 해주었다. 상점과 레스토랑이 입점한 건물들의 차림차림이 확연한 유럽풍이었다. 하지만 케이프타운의 압도적인 상징은 도시 어디에서나 눈에 들어오는 '자연 전망대' 테이블 마운틴(Table Mountain)이었다. 케이블카에 의지해 정상에 올랐더니 산과 바다와 도시가 그려내는 장쾌한 풍경화가 발아래 펼쳐졌다. 시도 때도 없이 끼는 안개 때문에 멀리까지 내다볼 수 없었지만, 안개에 싸인 모습조차 매력적이었다.

- 5 프리토리아 기차역에 정차한 블루 트레인 내부.
- 6 블루 트레인의 객실은 크게 사위 시설을 갖춘 딜럭스 스위트와 욕조가 있는 럭셔리 스위트로 나뉜다.
- 7 캠퍼 댐 인근의 플라밍고 떼.
- 8 '아프리카 최남서단 희망봉'이라고 쓰인 표지판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는 관광객들.
- 9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입법 수도이자 최고의 관광도시 케이프타운.

테이블 마운틴이 케이프타운 안쪽에서 도시의 중심을 잡아주는 존재라면, 외곽에서 가장 우뚝한 존재는 희망봉(Cape of Good Hope)이다. 경치도 빼어나지만 아프리카 최남서단이라는 지리적 의미가 각별하다. 육지 끝부분을 찾은 사람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희망봉이라고 쓰인 표지판 앞에서 포즈를 취했는데, 그들의 기꺼운 마음이 얼굴에 묻어나는 것 같았다. 해변까

지 내려와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동물들의 무심한 얼굴과 사투 대조적이었다. 해발 238m의 케이프 포인트(Cape Point)까지는 푸니쿨러(funicular)를 이용했다. 등대가 있는 정상에서 대륙의 끝을 둘러싼 2개의 바다, 즉 인도양과 대서양이 몸을 섞는 모습을 감상했다.

남아공은 세계에서 8~9위를 다투는 큰 와인 생산국이자 330년이 넘는 와인 양조 역사를 자랑하는 나라다. 같은 '신세계 와인'으로 목이지만 미국 캘리포니아나 호주 및 뉴질랜드보다 역사가 더 길다. 와인 루트는 케이프반도 근교에서 시작해 북쪽 노던케이프까지 이어진다. 청신한 포도밭이 시각적 쾌락을 선사하고 목가적인 풍경이 마음에 감겨드는, 세상에서 가장 긴 와인 루트다. 그중 스텔렌보스(Stellenbosch), 파를(Paarl), 프랑슈후크(Franschoek) 등 케이프타운 외곽에 자리한 5개 지역을 남아공 와인의 중심지라는 의미에서 '와인랜드'라고 부른다. 남아공에서 주목할 포도 품종은 우리에게 좀 생소한 피노타주(Pinotage)다. 피노누아와 생소를 교배해 만든 것으로 비교적 무겁고 진한 맛이 난다.



- 10 스파클링 와인이 인상적인 오토 카브리예르의 와인 셀러. 성당이 연상되는 독특한 구조를 지녔다.
- 11 부펠스드리프트 게임 로지의 코끼리. 직접 먹이를 주는 체험이 가능하다.
- 12 전문 레인저가 이끄는 사륜구동 차를 타고 야생의 동물을 찾아 나서는 게임 드라이브. 가든 루트 여행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다.

10

11

야생의 생명력으로 충만한 길

와인랜드에서 네 곳의 와이너리를 방문했다. 스텔렌보스의 니들링쇼프(Neethlingshof)는 정원처럼 꾸민 와이너리의 풍경도 도드라졌지만 무엇보다 품질 대비 저렴한 가격이 돋보였다. 스텔렌보스의 또 다른 와이너리 스피어(Spier)는 종합 선물 세트 같았다. 남아공 최고의 셀러를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아프리카 테마 레스토랑인 모요, 숫자 8에서 영감을 얻은 레스토랑 에이트, 레스토랑과 와인 바를 갖춘 스피어 호텔 등 여러 부대시설이 함께 자리했다. 프랑슈후크의 오토 카브리예르(Haute Cabriere)는 수려한 풍광을 지닌 와이너리였다. 높은 곳에 동지를 틀고 있어 조망이 활달했으며, 성당 내부가 연상되는 셀러 또한 독특했다. 샴페인의 색과 맛이 인상적이었는데, 그중에서도 창립자의 이름을 차용한 샴페인과 샤프도네로만 만든 '블랑 드 블랑'이 특히 눈길을 끌었다. 역시 프랑슈후크에 위치한 샴오니(Chamonix)는 전통 농가 느낌이 물씬했다. 18세기에 지은 대장간 건물과 첫눈에도 긴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압착기 등이 와이너리에 예스러운 분위기를 드리웠다.

이름에서부터 싱그러움이 묻어나는 가든 루트(Garden Route)는 남아공 제일의 드라이브 코스다. 넓게 잡으면 케이프타운에서 포트엘리자베스(Port Elizabeth)까지 이어지는 구간을, 좁게 잡으면 모슬베이(Mossel Bay)에서 시작해 치치카마(Tsitsikamma) 국립공원에 다다르는 약 180km의 길을 의미한다. 남아공 남단의 내륙과 해안을 훑고 지나가는 가든 루트에는 반사막과 화석 사구, 천년의 동굴과 광활한 인도양 등 남아공의 모든 자연이 깃들여 있다. 모슬베이에서 가깝고 즐길 거리가 많은 오츠혼(Oudtshoorn)은 많은 사람이 가든 루트 여행을 시작하면서 빼놓

지 않고 들르는 도시다. 가장 매력적인 프로그램은 사륜구동 차량을 타고 야생동물을 관찰하는 게임 드라이브. 가든 루트 곳곳에는 이런 사파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설 로지가 자리하고 있다. 게임 드라이브에는 전문 스태프가 동행한다. 주변 지형에 밝고 야생 동식물에 해박하다. 차량은 보통 오픈 지프를 이용한다. 게임 드라이브 도중 마주치게 되는 동물들이 차량으로 돌진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이도 있지만 레인저의 지시만 잘 따르면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야생동물은 꽤나 도도하다.

오츠혼의 부펠스드리프트 게임 로지(Buffelsdrift Game Lodge). 사파리 레인저 하노 씨가 운전석에 앉자 이내 육중한 지프가 출렁거렸다. 드디어 게임 드라이브가 시작된 것이다. 젊은 레인저는 굴곡진 흙길과 기울어진 비탈면을 헤치며 나아가는 와중에도 남아공의 자연에 대해 폭넓은 지식을 늘어놓았다. 그의 남다른 시력과 청력이 가젤, 기린, 코뿔소 등의 급작스러운 출현을 포획해냈다. 남아공 화폐에 등장할 정도로 웅숭한 대접을 받는 '빅 5', 그러니까 사자, 코끼리, 코뿔소, 표범, 버팔로를 죄다 만날 수는 없었지만 몇몇 동물과 조우하는 것만으로도 야생의 생명력이 살갗으로 전해졌다. 견고한 갑옷을 입은 코뿔소가 길을 가로막고 차량과 대치하는 순간에는 사문화된 야생의 본능이 몸속에서 꿈틀거리는 것 같았다. 게임 드라이브 도중 스와트버그산 개활지에서 잠시 휴식을 취했다. 하노 씨가 준비해 온 맥주로 목을 축이며 드넓은 평야와 봉긋 솟은 구릉과 면면한 산맥이 만들어낸 기함(起陷)의 풍경을 마음속에 들였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는 아프리카의 초원을 적시는 노을이 장관을 이루어 사람들의 시선을 꼼짝없이 붙들어 댔다.

글과 사진 노중훈(여행 칼럼니스트)



가는 길 일단 홍콩까지 간 다음 남아프리카항공을 이용해 요하네스버그로 들어간다. 공항에서 40분 거리에 있는 프리토리아로 이동, 블루 트레인을 타고 케이프타운까지 간다. 케이프타운에서 바로 차량을 렌트한 다음 가든 루트 탐험을 시작하거나 비행기를 타고 또 다른 기점 도시인 조지로 이동할 수도 있다. 케이프타운에서 조지까지 비행시간은 약 50분.

오츠혼 오츠혼은 '타조의 수도'로 불린다. 무려 450여 개의 타조 농장이 있다. 캥고 타조 농장을 방문하면 아낌없이 주는 것은 나무가 아니라 타조임을 알 수 있다. 캥고 와일드라이프 랜치는 남아공의 다양한 동물을 한데 모아놓은 곳이다.

숙박 케이프타운 인근에 자리한 라 레지던스(www.laresidence.coza)의 객실은 전부 스위트룸이다. 각 룸마다 다른 콘셉트로 인테리어했으며, 상당히 화려하다. 오츠혼의 부펠스드리프트 게임 로지(www.buffelsdrift.com)에는 리셉션과 레스토랑이 있는 본관 건물에 더해 25개의 텐트가 있다. 텐트의 장막을 벗으면 호화로운 내부 시설이 눈에 들어온다. 뜨거운 물이 쏟아지는 샤워 시설은 기본이고 에어컨과 전기 담요도 구비돼 있다.

‘더 클래식 500 펜타즈 호텔’ 라비앙로즈 손성모 소믈리에가 추천하는 여름에 즐기는 와인 리스트

프랑스어로 ‘장밋빛 인생’이라는 뜻의 라비앙로즈는
럭셔리한 유럽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와인 레스토랑&바다.
경험이 풍부한 라비앙로즈의 소믈리에에게 듣는 여름 와인 즐기는 법.

기억하고 싶은 특별한 날, 또는 평범한 일상에
편안함을 느끼는 날 곁에 와인이 있다면 행복
은 배가된다. 손성모 소믈리에에는 라비앙로즈를
찾는 고객에게 여름에는 상큼함과 청량감이 뛰
어난 스파클링 와인이나 화이트 와인을 추천
한다. 마시기에 부담스럽지 않고 시원한 컬러
가 보는 즐거움까지 더해주기 때문이다. 샐러
드 같은 가벼운 애피타이저, 담백한 생선 요리
를 즐길 때도 스파클링 와인이나 화이트 와인
을 곁들이면 풍미가 좋아진다. 와인 초보자가
와인을 배우고 즐기기도 적당하다. 소믈리에
에게 정보를 듣고 하나씩 접하다 보면 어느새
세련된 와인 문화에 푹 빠지게 될 것이다.

손성모 소믈리에에는 다양한 와인을 즐기고 싶다면
와인 마니아들 사이에 입소문이 난 라비앙
로즈의 ‘세계 유명 와이너리의 와인을 즐길 수
있는 갈라 디너’를 추천한다. 정기적으로 열리
는 갈라 디너는 코스 메뉴에 어울리는 다양한
와인을 페어링하는 행사로, 명품 와인을 합리
적인 가격으로 경험할 수 있어 인기다.

Pascal Jolivet Sancerre Blanc 파스칼 졸리베 상세르 블랑

중후하고 우아한 맛과 향을 지닌 프
랑스 루아르 지역의 와인. 적당한 산
도와 깔끔한 끝 맛이 특징이며, 생선
요리와 잘 어울린다.



Taittinger Reserve Brut 테탕제 리저브 브뤼

섬세함이 잘 표현되고 풍부한 과일
향과 구조감이 느껴지는 명품 샴페인
이다. 샴페인 하우스 중 톱 3에 들어
가는 세계가 인정하는 명품 하우스.

Piper Heidsieck Cuvee Brut 파이퍼 하이직 퀴베 브뤼

여왕을 위한 샴페인을 만들고자 시
작한 샴페인 하우스로, 영화배우 마
릴린 먼로가 가장 사랑한 샴페인
으로 유명하다. 보디감과 청량감을 동
시에 즐길 수 있다.

Maequés de Riscal Rueda 마르케스 데 리스칼 루에다 화이트 베르데호 100%

상큼한 과일 맛과 청량한 산도가 일
품인 부드러운 와인이다. 시원하게
칠링해서 마시기 좋다.



손성모 소믈리에

THE CLASSIC 500 PENTAZ HOTEL
F/B Team Manager,
(사)한국소믈리에협회 회장

“와인은 술이기 전에 하나의 문화입니다.
와인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고, 음식과의
마리아주 등 세련된 문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와인을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천천히 알아가보세요.”



LA VIE EN ROSE

모던한 인테리어와 격조 높은 서비스, 정통
유러피언 요리를 선보이는 라비앙로즈에
서는 일품요리와 세트 메뉴를 비롯해 세계
각국의 와인 180여 종을 맛볼 수 있다. 소믈
리에가 와인에 대한 설명은 물론 와인과 관
련한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들려준다.

영업시간

평일-공휴일-토요일 11:30~23:00
일요일 휴무(단체 행사 사전 예약)

문의

전화 02-2218-5750 홈페이지 www.pentaz.co.kr

와인과 어울리는 요리

해산물 샐러드

관자, 새우, 바지락 등 신선한 해산물로 만든 샐
러드. 샴페인이나 화이트 와인을 곁들이면 상
큼한 맛이 더해진다.

농어 카르파초

식감이 쫄깃한 흰살 생선 농어로 만든 카르파
초는 미식가들이 꼽는 인기 애피타이저다. 생
선의 섬세한 맛을 즐기고 싶다면 샴페인이나
화이트 와인이 잘 어울린다.

와인 레스토랑&바 라비앙로즈는 모든 메뉴
‘20% 할인’ 서머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기간 2018년 7월 1일~8월 31일

Blue in Summer

패밀리 스위트, 푸른 바다의 기운을 담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과 깊이를 알 수 없는 바다가 더 클래식 500 펜타즈 호텔에서 조우한다. 블루 컬러 특유의 다이내믹한 이미지를 활용한 쿨 톤 스타일링으로 호텔에서의 순간순간이 시원해진다.

스타일링 | 김지영(아키타입)
가구 협찬 | 마멜(02-588-9216~7, www.marmelo.kr)



LIVING ROOM

다양한 블루의 조화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블루 컬러의 조합은 시각적으로 청량감을 선사한다. 모던한 아이보리 컬러 소파에 다양한 톤과 패턴의 쿠션을 여러 개 놓아 포인트를 주었고, 기하학적인 패턴의 소가구는 예술 작품처럼 공간에 품위를 더한다. 휴식을 위한 거실이 스타일리시한 공간으로 변모했다. 고급스러운 대리석 테이블과 투명한 코발트 블루 컬러의 유리 저그는 실내에 청량한 기운을 불어넣는다.





KITCHEN

파도가 넘실거리는 조리 공간

거실과 대면형으로 구성된 펜타즈 호텔의 주방은 편안한 구조와 우드 소재로 마감해 세련미가 돋보인다. 탁 트인 시티뷰의 주방에는 높이가 제각각인 블루 컬러의 그라데이션 화기로 포인트를 주면 깊은 바다처럼 신비로운 분위기가 연출된다. 화기가 마치 조각품처럼 주방의 오브제가 되어준다.

BATHROOM

여름에는 습기로 꿈꿨해지기 쉬운 욕실에 가느다란 선이 아름다운 꽃 한 송이를 두면 한결 상쾌하고 정갈한 느낌이 든다. 화이트 일색인 욕실용품도 블루 컬러로 변화를 주면 절로 기분 전환이 된다.



BEDROOM

푸른빛이 선사하는 안락함

여름에 하늘빛을 닮은 블루 컬러는 차가움보다는 부드럽고 편안한 느낌을 선사한다. 트윈 베드에 파스텔 톤 블루 컬러의 침구를 매치하면 계절감은 살리고 침실 특유의 아늑함이 연출된다. 질푸른 색감의 스톤은 실용적인 가구이자 오브제의 하나로 침실에 강약을 준다.



ENTRANCE

블루로 전하는 인사

산뜻한 그림 한 점이 호텔 룸을 찾은 방문객을 환영한다. 현관은 공간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중요한 곳이다. 클래식 모던 스타일의 펜타즈 호텔에서는 블루 컬러가 쓰인 그림이 포인트 장식이 되어준다. 차분한 컬러의 마감재와 경쾌한 이미지의 그림이 조화를 이루어 공간에 생기가 돈다. 블루 컬러 액자를 무심한 듯 바닥에 세워놓아도 멋스럽다.

더 클래식 500 펜타즈 호텔 무더위 쫓는 '시티뷰 스카이풀' 패키지

- * 도심 전망의 스카이풀에서 럭셔리 호텔 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패키지
- * 웰컴 하우스 와인, 카페 마실 아메리카노, 스파 50% 할인 등 다양한 혜택 제공

서울시 광진구 건대입구역에 위치한 더 클래식 500 펜타즈 호텔이 도심 전망의 스카이풀에서 휴식을 취하며 무더위를 쫓을 수 있는 '시티뷰 스카이풀' 패키지를 출시했다. 시티뷰 스카이풀 패키지는 ▲스위트룸 또는 슈퍼리어 스위트룸 1박(125.62㎡, 38평) ▲스카이풀 무료 ▲웰컴 하우스 레드 와인 1병 ▲카페 마실 아메리카노 ▲피트니스센터 무료 ▲스파 50% 할인으로 구성됐다. 펜타즈 호텔의 스카이풀은 서울 도심이 보이는 탁트인 전망과 마천루 사이에 위치해 CF 촬영 장소로 유명하다. 수심이 1.2m로 적당해 젊은 층뿐 아니라 아이들이 즐기기에 부담 없어 가족 단위 고객에게도 인기가 높다.

2인 기준 패키지

스위트룸: 주중 28만9000원 / 주말 34만9000원

3인 기준 패키지

슈퍼리어 스위트룸: 주중 31만9000원 / 주말 37만9000원

- * 패키지 판매 기간은 6월 15일~9월 2일이며, 성수기인 7월 14일~8월 19일은 객실 1박당 1만 원이 추가된다.

한편 펜타즈 호텔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시 최저가를 보장하는 'Best Price Guarantee'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펜타즈 호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전화 02-2218-5777 홈페이지 www.pentaz.co.kr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더 클래식 500 펜타즈 호텔

도심 속 오아시스
더 클래식 500 펜타즈 호텔

Sky Pool

올여름 가족, 연인과 여유로움을 만끽하고 싶다면
도심 속 '호캉스'는 어떨까?
무거운 캐리어도, 거창한 계획도 필요 없다.
하늘과 가까운 스카이프에서 물놀이를 즐기며
시원하게 무더위를 이긴다.

이제 멀리 떠나지 않아도 여유롭고 편안한 휴식 시간을 누릴 수 있다. 더 클래식 500 펜타즈 호텔의 '스카이프'이 의미 있는 힐링 타임을 선물할 테니. 초고층 빌딩 숲 사이에 위치한 스카이프는 탁 트인 하늘 아래 도심 전망을 감상할 수 있는 야외 수영장이라는 점이 매력적이다. 수심 1.2m, 길이 25m 크기로 물놀이와 선댄 등도 가능해 어른, 아이 모두 무더위와 피로를 말끔히 날려버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물놀이를 배가 출출해지면 수제 햄버거와 볶음밥 등 간단한 음식을 주문해 먹을 수 있고, 풀 바에서는 시원한 생맥주를 판매해 언제든지 갈증을 해소할 수 있다. 스카이프에서의 자유롭고 느긋한 시간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휴식이 아닐까. 더 클래식 500 펜타즈 호텔에서는 여름을 맞아 피서 패키지 '시티뷰 스카이프'를 판매 중이므로 좀 더 여유롭게 여름 휴가를 즐기고 싶다면 예약을 서두르자.

스타일링 | 김지영(아키타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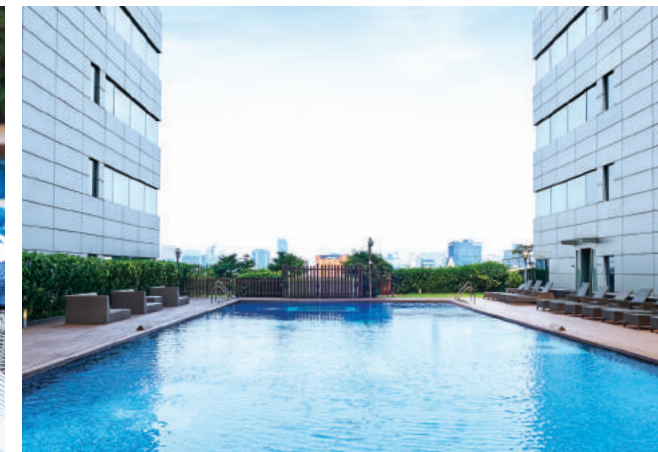
SKY POOL

지상 5층에 위치한 도심 속 야외 수영장(수심 1.2m, 길이 25m)으로, 3세대가 수영과 선댄 등을 즐기며 가족, 친지들과 여유로움을 나눌 수 있는 레저 공간이다.

운영 기간 | 6월 중순~9월 초

문의

전화 | 02-2218-5800 홈페이지 | www.pentaz.co.kr



Delicious Summer

열정의 계절, 여름의 생명력을 품은 음식이
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한다.
더 클래식 500 펜타즈 호텔 라구뜨가 정성스레 차려낸
여름 식탁의 화려한 향연을 즐긴다.

스타일링 | 김지영(아키타입)



SUMMER SPECIAL

문어 세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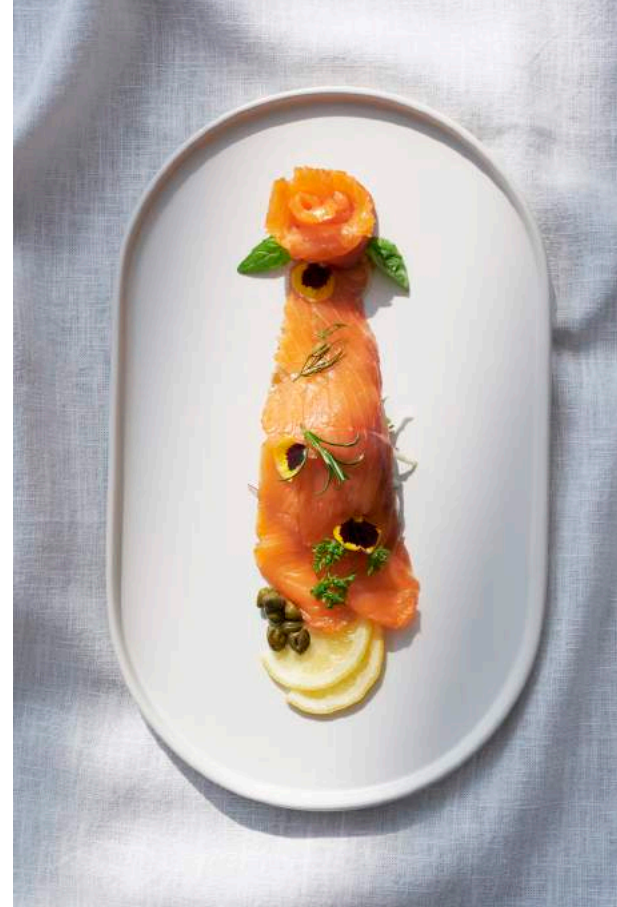
문어를 얇게 저며 썬 다음 세비체 드레싱을 뿌린 요리. 세비체는 생선 살을 레몬에 절였다가 양파, 고수, 올리브 오일 등을 뿌리는 남미의 대표적 요리다. 문어 특유의 쫄깃한 식감을 즐기고 타우린, 아미노산 등 풍부한 영양소를 섭취하기 좋다.

보콘치니 치즈 샐러드&복분자청에 절인 방울토마토

복분자청에 껍질을 제거한 방울토마토와 설탕을 넣어 하루 동안 재우면 달짝지근한 맛에 피로가 풀리고 기분까지 좋아진다. 샐러드는 동그란 보콘치니 치즈에 토마토, 올리브를 섞고 올리브 오일을 뿌려 만든다. 고소하고 상큼한 맛이 식욕을 자극한다.

물회

후텁지근한 더위를 잊게 만드는 시원한 물회. 살얼음이 동동 뜬 새콤달콤한 국물과 신선한 해산물이 어우러진 물회는 여름을 대표하는 음식이다. 기호에 따라 밥이나 소면을 국물에 말아 먹으면 든든한 한 끼 식사로도 손색없다.



SEAFOOD

메기 피카타&꽃게튀김과 블랙빈 소스

피카타는 고기에 달걀물을 입혀 굽는 이탈리아 요리지만 라구뜨에서는 고기 대신 두툽한 메기살을 사용한다. 노릇하게 구운 메기에 버터 크림 소스를 더해 먹으면 입안이 행복해진다. 살이 꽉 찬 꽃게를 기름에 바삭하게 튀기면 꽃게의 풍미가 더욱 살아난다. 블랙빈 소스는 꽃게 튀김 맛을 더욱 풍부하게 해주는 신의 한 수.

훈제 연어와 콘디멘타

훈제 연어는 은은한 훈연 향과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기름진 맛이 매력적으로,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식재료 중 하나다. 생선의 비린내를 잡는 홀스래디시 크림과 레몬, 양파를 곁들이면 훈제 연어 맛이 한층 풍성해진다.

관자 카르파초

관자를 찐 다음 얇게 썰어 토마토 살사 소스를 곁들인다. 관자 특유의 담백한 맛과 이국적인 소스의 조합이 근사하다. 관자 카르파초는 애피타이저, 또는 와인 안주로도 잘 어울려 언제나 환영받는 음식이다.

MEAT

양갈비구이&그릴 채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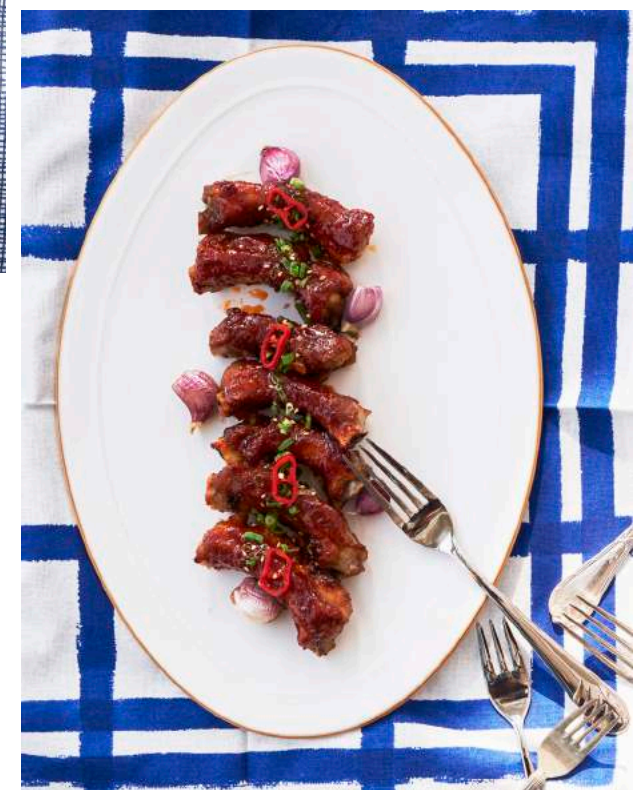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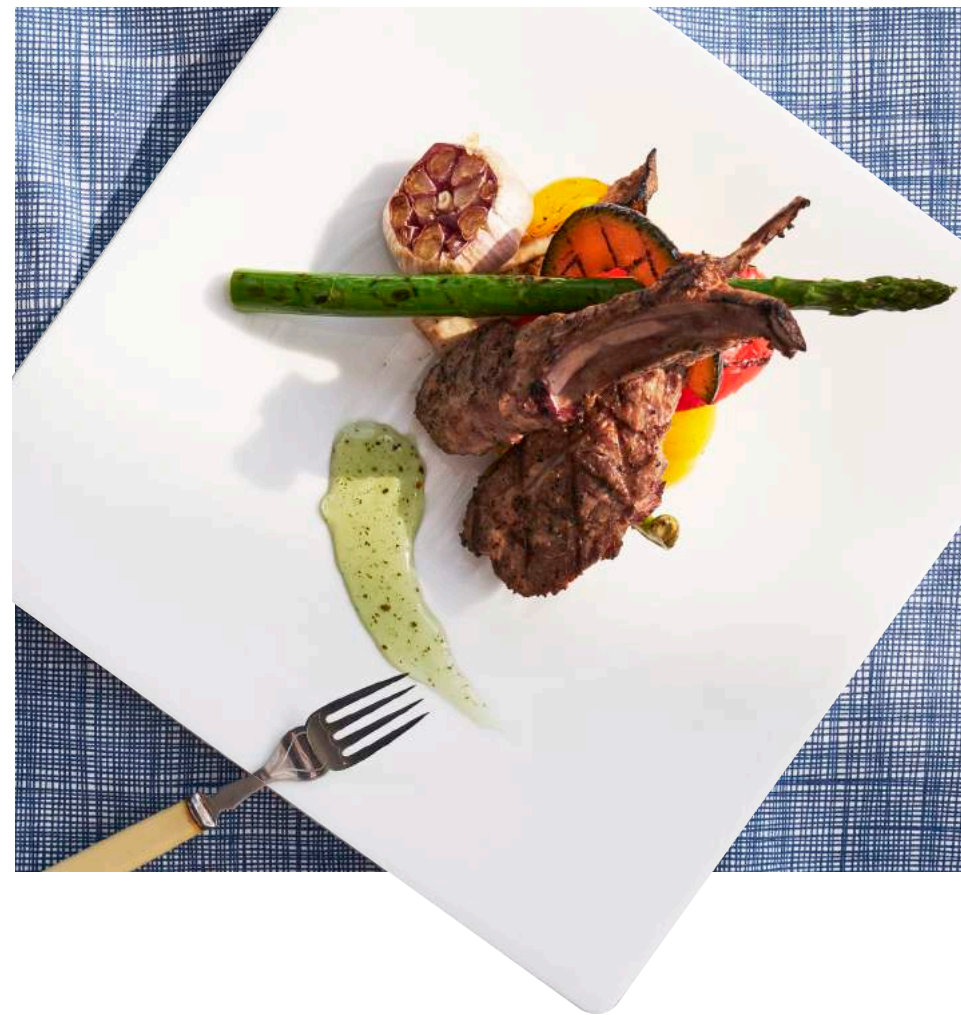
양의 여러 부위 중 솔더랙을 사용해 특유의 냄새 없이 부드럽고 풍미가 뛰어나 고급스러운 고기 요리를 맛보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아스파라거스와 마늘, 파프리카 등 네 가지 채소를 향이 나도록 그릴에 구운 다음 올리브 오일 향신료를 더하면 양갈비구이에 잘 어울리는 사이드 메뉴가 완성된다.

LA 갈비

'갈비의 측면(lateral)'이라는 뜻에서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알려진 LA 갈비는 지방과 골즙의 고소한 맛이 일품이다. 기름기를 적당히 제거하고 간장 베이스의 양념장에 재웠다가 구우면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 않는다.

돼지 등갈비 바비큐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고기 요리법이 바로 바비큐다. 달콤하고 매콤한 양념을 고루 발라가며 구운 돼지 등갈비는 밥도둑이 따로 없다. 손으로 잡고 뜯는 재미까지 느낄 수 있다. 더위에 지친 날, 시원한 맥주 안주로 강력 추천한다.





LA GOUTTE

라구뜨(La Goutte)는 물방울을 모티브로 섬세하고 정제된 이미지와 식재료 본연의 맛을 추구하는 프리미엄 뷔페다. 산지에서 직송한 신선한 식재료와 오가닉 조리법으로 만든 최고의 요리를 제공한다. 홍초와 흑초를 이용한 영양초밥 코너, 스노 크랩과 왕새우로 만든 일품요리를 선보이는 해산물 코너, 에스닉 푸드를 맛볼 수 있는 딤섬 & 아시아 누들 코너는 셰프가 즉석에서 조리한 음식을 맛보는 라이브 키친만의 즐거움이 가득하다. 대리석, 원목 등 자연 친화적 소재로 꾸민 라구뜨의 인테리어도 품격 있는 식사에 한몫한다. 특히 통유리의 실내 테라스는 도심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식사를 즐기는 이색적인 경험을 제공해 만족감을 높여준다.



"최고의 식재료와 신뢰할 수 있는 오가닉 조리법으로 만든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라구뜨만의 차별화된 요리로 행복한 시간을 선물하겠습니다." -이상환 총주방장

SIGNATURE MENU

스노 크랩

속살이 눈처럼 희다 해서 이름 붙은 스노 크랩. 우리나라에서는 다리가 대나무처럼 길다고 해서 대게라 부른다. 짠맛을 적당히 빼고 찐 스노 크랩은 촉촉하면서 담백한 맛, 탱글거리는 식감까지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최고의 메뉴다.

모듬 초밥

재료 본연의 맛과 셰프의 노련한 솜씨가 만나 고급스러운 맛을 연출하는 초밥. 전복, 새우, 참치, 고등어 등 식감과 맛이 제각각인 다양한 식재료를 골고루 맛볼 수 있다. 활짝 핀 꽃이 연상되는 플레이팅이 입맛을 돋운다.

DESSERT

녹차 시폰 케이크 & 인디비전 모듬 디저트

'식사를 끝마치다', '식탁 위를 치우다'라는 의미의 디저트는 식사의 만족도를 가능하는 중요한 요리다. 녹차를 활용한 케이크, 크림 브뤼레, 프루츠 푸딩 등 아름다운 색감과 달콤한 맛의 디저트라면 완벽한 마무리.

Breakfast Buffet

주중 07:00~10:00	성인 2만2000원
토요일 07:00~10:00	초등학생 1만5000원
일요일·공휴일 07:00~10:00	미취학 아동 1만5000원 (36개월 이상)

Lunch Buffet

주중 12:00~14:30	성인 주중 4만8000원
토요일 11:30~14:30	성인 주말·공휴일 6만2000원
일요일·공휴일 11:30~14:30	초등학생 주중 2만2000원 초등학생 주말·공휴일 2만7500원 미취학 아동 1만6500원 (36개월 이상)

Dinner Buffet

주중 18:00~21:30	성인 주중 5만9000원
토요일 1부 17:00~19:00	성인 주말·공휴일 6만2000원
토요일 2부 19:30~21:30	초등학생 2만7500원
일요일·공휴일 17:30~21:00	미취학 아동 1만6500원 (36개월 이상)

문의

전화 02-2218-5771 홈페이지 www.pentaz.co.kr
키카오톡 플러스 친구 라구뜨

더 클래식 500 자원봉사단의 ‘함께’라는 이름의 행복 여행

지난 5월 23일 더 클래식 500 자원봉사단의 후원 회원 40여 명이 강원도와 경기도의 대표 자연 여행지에 다녀왔다. 이웃의 어려움에 나눔의 마음으로 함께하는 회원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마련한 특별한 자리다. 신록의 푸르름과 웃음이 가득했던 향기로운 봄날의 추억을 만난다.



설렘 가득한 여행의 시작

“어제 비가 와서 오늘 갈 수 있을까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하늘도 파랗고, 공기도 깨끗해서 너무 좋은 거 있죠? 너무 기뻐서 새벽 5시에 연락을 다 했더니깐요. 호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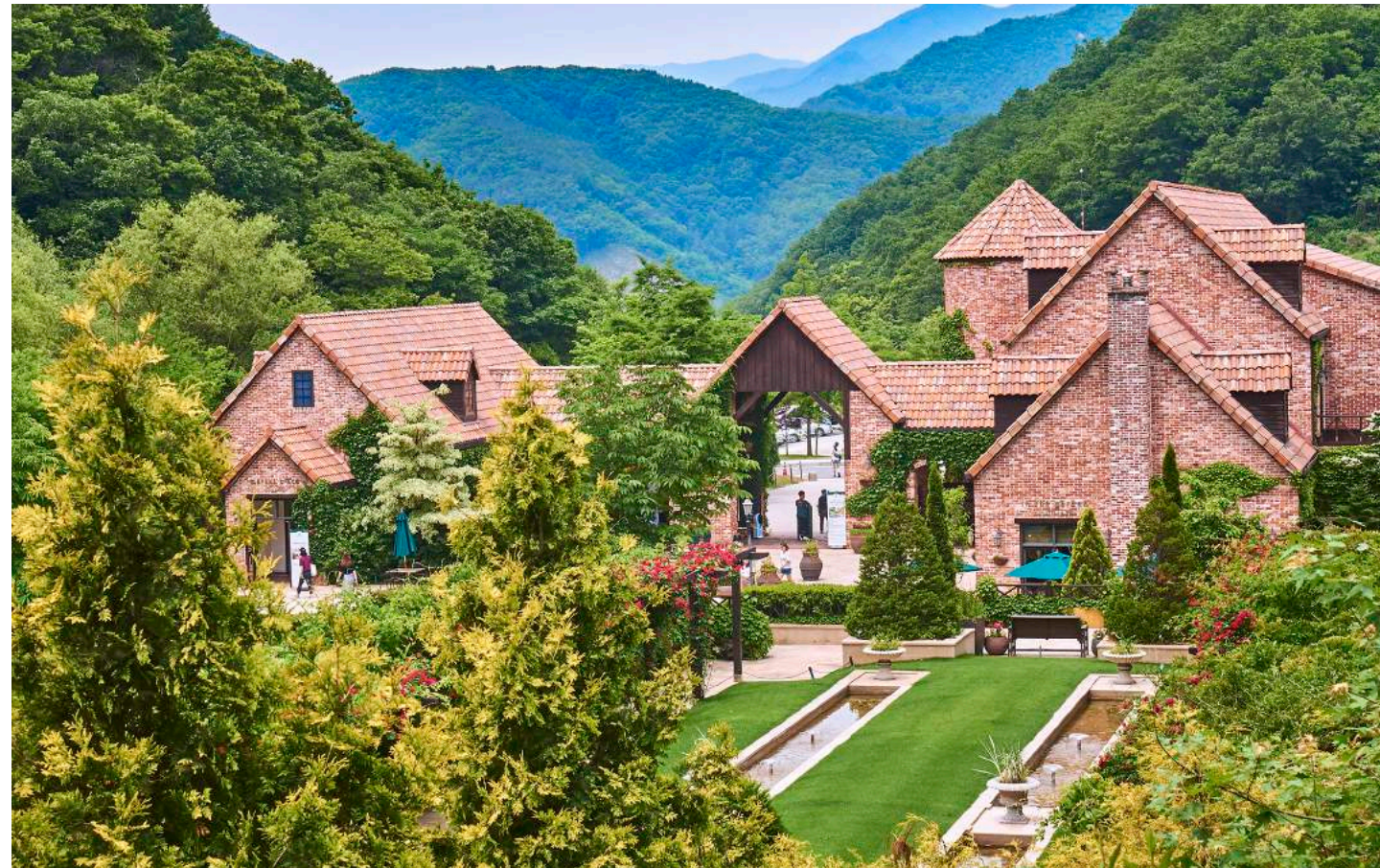
더 클래식 500 자원봉사단의 후원 회원 초청 행사로 진행된 여행에 참석한 회원들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이다. 매년 봄이면 손꼽아 기다리던 특별한 날들이에 굶은 날씨가 문제 될까 내심 걱정했던 것. 하지만 회원들의 말처럼 ‘착한 사람들의 여행 법칙’이랄까, 자원봉사단의 여는 여행이 그러했듯 비와 미세먼지 사이로 반짝이는 날씨가 선물처럼 펼쳐졌다.

오전 9시 30분 강원도 춘천을 향해 출발. 뽀뽀한 도심의 회색빛 빌딩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신록을 입은 초록 들판과 산이 차창 밖을 채웠다. 회원들은 그동안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를 도란도란 꽃피웠다. “우리 사진도 많이 남겨야지. 자, 김치~” 차 안 모습까지 놓치지 않고 봄 여행 추억의 첫 장을 기록했다.

버스로 이동하는 시간을 이용해 자원봉사단이 최근 진행한 모금 소식도 공유했다.

“주간 레터를 통해 공개한 후원이 필요한 가정의 사연 보셨죠? 많은 분이 관심을 갖고 십시일반 마음을 모아주셔서 목표 금액 200만 원이 초과되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봉사단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분이 많았어요. 앞으로 더 많은 분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해주시고 함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타까운 사연에 내심 마음이 쓰였던 회원들은 반가운 소식에 박수를 보내며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여행을 즐길 수 있었다.





향기로운 사람들의 마음 나눔, '더 클래식 500 자원봉사단'

더 클래식 500 자원봉사단은 2011년 발족해 현재 80세대가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대표 커뮤니티다. 행사가 있을 때 출연하는 회원을 포함하면 100세대 정도가 나눔에 동참하고 있다. 지금까지 누적된 후원금은 총 3억2000만 원으로, 해마다 4000~8000만 원의 기금을 모아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하는 등 따뜻한 선행을 이어가고 있다. 더 클래식 500은 나눔에 참여한 회원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뜻으로 5월과 10월 두 차례 정기적으로 후원 회원 초청 여행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싱그러운 유럽풍 가든으로의 초대

차로 1시간 30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숲 속에서 나는 작은 유럽 '제이드가든 수목원'. 약 16만㎡ 규모에 24가지 유럽풍 테마로 조성한 명품 수목원이다. 몇 해 전 드라마 <그 겨울, 바람이 분다>에서 송혜교의 예쁜 저택으로 나와 눈길을 끈 곳으로 웨딩 촬영과 야외 결혼식장으로도 인기가 많다.

입구에 들어서자 드라마 속 아름다운 붉은 벽돌 건물과 영국식으로 꾸민 화단, 나무, 그리고 색색의 꽃이 눈앞에 펼쳐졌다. "어머, 정말 예쁘다. TV에서만 봤는데 좋네." "나무가 많아서 그런지 어쩔 이렇게 공기가 깨끗해." "우리 여기서 사진 한번 찍읍시다. 어서 와요." 회원들의 감탄이 곳곳에서 이어졌다.

단체 사진 촬영 후 회원들은 삼삼오오 짝을 이뤄 제이드가든 구석구석을 자유롭게 즐겼다. 잔디 위에 주목이 정렬된 영국식 보더가든을 지나자 소박하게 꽃망울을 피운 장미 터널로 꾸민 이탈리아안가든이 이어졌다. 회원들은 폭신폭신한 낙엽송 우드 칩이 두껍게 깔린 길 양옆으로 늘어선 푸른 나무 옆을 걸을 때는 심호흡하며 온몸으로 아름다운 숲속의 정취를 만끽했다.

함께여서 더 행복한 풍경

"어머어머, 내 손 좀 잡아줘요." "출렁거리니 재밌네. 호호." 수목원 중간 지점에 있는 나무놀이집에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데크 한쪽에 설치된 흔들다리에 발을 내딛기가 무섭게 다리가 출렁이자 놀라움과 즐거움에 감탄이 터져 나온 것. 하지만 추억을 놓칠세라 다 함께 서서 멋진 포즈로 사진을 남겼다.

제이드가든은 산줄기에 계곡의 지형을 자연 그대로 살려 약간 경사진 코스도 있었다. 그러나 평소 건강을 다져온 회원들에게는 별반 문제가 되지 않았다. 날뻐 다람쥐처럼 가벼운 발걸음으로 수목원 곳곳을 누빈 것. 일부 회원은 일찌감치 중상부에 위치한 이끼원에 도착해 나무 그늘 아래 벤치에서 쉬며 담소를 즐겼다. 졸졸 흐르는 계곡물 소리와 은은한 나무 향, 서늘한 그늘이 맘을 식혀주기 충분했다.

한편에서는 함께 참석한 부부 회원이 손을 꼭 잡고 오붓하게 산책을 즐겼다. 나뭇잎도 만져보고, 색색의 꽃을 들여다보며 향도 음미했다.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느라 다 둘러볼 수는 없었지만, 함께 여유를 즐기게 되어 너무 좋다는 부부의 얼굴에는 그 어떤 꽃보다 예쁜 미소가 가득했다.

버스 안에서 펼쳐진 퀴즈 열전

떠나기 아쉬운 수목원을 뒤로하고 찾아간 곳은 근교에 위치한 경기도 가평 맛집. 춘천의 명물 숯불 닭갈비와 막국수, 가평 특산물인 고소한 잣으로 만든 잣두부 만두버섯전골과 잣막걸리로 차린 웰빙 식탁, 여기에 함께 나누는 훈훈한 이야기가 더해져 더없이 풍성한 점심시간이었다.

다음 코스인 구리 한강시민공원으로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는 재미있는 O, X 퀴즈가 진행됐다. 자원봉사단 발족 연도인 2011년을 맞히는 문제부터 봉사단과 활동에 대한 문제가 이어졌다. 그리고 마지막 퀴즈는 바로 작년 봄 여행지를 묻는 질문이었다.

"아~ 저에게 속은 분이 많으시네요. 아쉽게도 작년 봄 여행지는 철원이었죠. 문제로 낸 창덕궁은 10월의 여행지였습니다. 오늘이 좋은 추억으로 남길 바라며 준비한 이벤트 상품은 모든 분께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재치 있는 입담에 지루할 틈 없이 두 번째 여행지인 구리 한강시민공원에 도착했다.

강변에서 만난 소담한 봄꽃 향연

평일 한낮 강변에 위치한 공원은 수목원과 또 다른 여유로움이 가득했다. 유유히 흘러가는 한강과 탁 트인 시야가 답답함을 날려주었다. 한가로이 산책을 즐기는 사람들과 시원한 강바람을 가르며 자전거를 타는 사람도 여럿이었다.

차에서 내려 하나둘 꽃을 피우기 시작한 장미 터널로 이루어진 터널로 들어섰다. 이제 막 피어나기 시작한 붉은 장미가 은은한 향기를 내뿜었다. 장미 터널을 지나자 색색의 꽃이 만발한 작은 꽃밭들이 펼쳐졌다. 얼마 전까지 들뜬 가득 흐드러지게 핀 노란 유채꽃을 만날 수 없어 아쉬웠지만, 그 자리를 델피니움, 디지털리스, 리빙스턴 데이지, 피튜니아 등 각양각색의 꽃이 채우고 있었다. 길 한쪽 끝에는 푸른 소나무가 시원한 그늘을 만들었다. 회원들은 천천히 산책하며 담소를 나누었다.

"언니, 손이 차다더니 정말 차네. 건강 잘 챙겨야겠어."

함께 손잡고 정답게 걷는 길. 그 길에는 꽃보다 더 아름답고 향기로운 자원봉사단 회원들의 마음이 피어 있었다.



봄날,
순백의 대자연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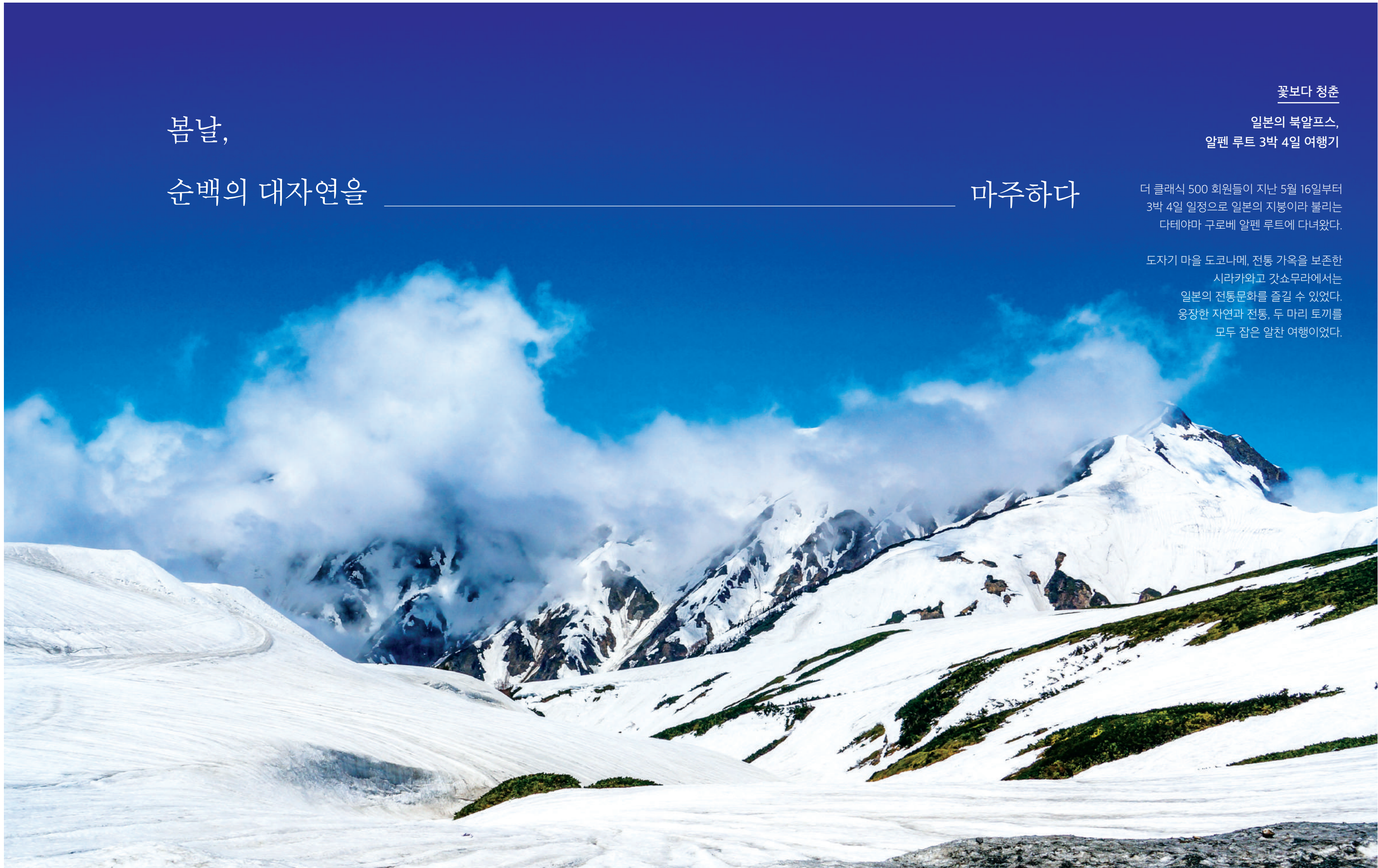
마주하다

꽃보다 청춘

일본의 북알프스,
알펜 루트 3박 4일 여행기

더 클래식 500 회원들이 지난 5월 16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의 지붕이라 불리는
다테야마 구로베 알펜 루트에 다녀왔다.

도자기 마을 도코나메, 전통 가옥을 보존한
시라카와고 갓소무라에서는
일본의 전통문화를 즐길 수 있었다.
웅장한 자연과 전통,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알찬 여행이었다.



전통을 품은 세계문화유산을 만나다

일본은 가깝고도 먼 나라라는 말 그대로 우리와 비슷한 듯하지만 생경한 문화를 가진 나라다. 더 클래식 500 회원들은 일본의 도쿄, 교토 등이 아닌, 조금은 낯선 지역으로 떠나는 여행에 대한 설렘이 컸다.

여행 첫날은 마네키네코(招き猫)의 고향인 나고야 도코나메를 가볍게 산책하는 것으로 일정을 시작했다. 앞발을 흔들며 손님을 부르는 고양이인 마네키네코 조형물이 여행객을 맞이해주었다. 일본 시골 마을의 한가로움이 여행객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나고야와 다음 날 가기로 한 시라카와고를 잇는 관문인 다카야마도 둘러보았다. 작은 교토라 불리는 다카야마는 도시의 모습을 제법 갖췄지만, 역사의 흔적이 가득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여행 이틀째, 회원들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간 듯한 신비로운 풍경을 마주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시라카와고의 갓쇼무라는 지붕 모양이 손을 합장한 형태라고 해서 갓쇼라 불린다. 수십 센티미터씩 쌓이는 눈의 무게를 이겨내기 위한 옛사람들의 지혜가 담겨 있다. 회원들은 "내가 살던 초가와 비슷하네", "이런 산속에 전통적인 마을의 모습을 잘 보존하고 있구나 대단하다"며 어릴 적 뛰어놀던 동네의 풍경을 떠올렸다. 추억놀이도 잠시, 도로코 열차에 오르면 다테야마 구로베 알펜 루트 중 하나인 구로베 협곡의 아찔한 비경이 펼쳐졌다. 구로베 댐을 만들면서 생긴 구로베호는 신비로운 물빛이 매력적이었다.

일정을 마친 회원들은 매일 뜨거운 온천에서 피로를 풀고, 정갈한 음식으로 내일을 위해 에너지를 재충전했다. 이번 여행의 하이라이트인 다테야마 구로베 알펜 루트를 둘러보는 일정이 다음 날 본격적으로 이어질 예정이었다.



1



4



5



2



3

- 1 다테야마 무로도의 설벽은 자연의 경이로움을 느끼게 하는 풍경이다.
- 2 일본 전통 가옥 앞에서 손가락 하트를 보내는 회원들.
- 3 오래된 료칸에서 온천욕과 맛있는 음식을 즐겼다.
- 4 여행 내내 즐거운 웃음으로 가득했던 꽃보다 청춘 여행단.
- 5 깊은 협곡과 청아한 물빛이 신비로움을 자아내는 알펜 루트.

경이로운 자연의 품에 안기다

제아무리 뛰어난 화가라 해도 자연이 빚은 아름다운 풍경을 뛰어넘을 순 없다. 관광객과 등산가들에게 사랑받는 다테야마 구로베 알펜 루트는 압도적인 자연 풍광으로 더 클래식 500 회원들을 감동 속으로 빠져들게 했다. 다테야마 구로베 알펜 루트는 우리나라에서 따사로운 봄 정취에 젖어 있던 회원들을 겨울 풍경 속으로 안내했다. 회원들은 시선이 닿는 곳마다 장엄하게 펼쳐진 산맥과 눈이 쌓인 설곡에서 신비로운 기분에 빠져들었다. 첫눈을 맞은 어린아이처럼 동심으로 돌아가 즐거워하는 회원도 있었다. "와~ 신기하다." "눈이 쌓인 산맥이 웅장하고 멋있네." 여기저기서 감탄과 환호가 터져나왔다.

다이내믹한 산악 관광으로 유명한 다테야마 구로베 알펜 루트는 도야마에서 나가노현에 걸쳐 이어진 약 90km의 루트다. 다테야마가 유명해진 건 세계 유수의 호설 지대라는 점 때문이다. 적설량이 많은 해는 높이가 20m에 달한다는 설벽 사이를 걸으며 회원들은 손으로 만져보고, 손주들에게 보여줘야겠다며 연신 사진을 찍기도 했다. 6시간에 걸쳐 둘러본 다테야마 구로베 알펜 루트는 보면 볼수록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자연이 연출하는 대파노라마는 인생의 희로애락을 겪으며 단단해진 회원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경건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꽃보다 아름다운 청춘들이 꽃처럼 아름다운 자연의 품에 안겨 원 없이 즐거움을 만끽한 시간이었다. 여름 햇살이 따갑게 느껴지는 어느 날, 이때 찍은 사진을 보며 잠시 더위를 잊어도 좋겠다.

◇◇◇◇◇◇◇◇

THE CLASSIC 500 문화센터 여름학기

2018년 6월 1일~8월 31일

커뮤니티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요일	시간	강사명	장소	수강료
스포츠					
굿모닝! 아침체조	월-금	07:30-07:50	이혜숨	4층 다목적실1	무료
탁구교실(1:1 개인 교습)	월-수	13:00-15:30(10분)	이나경	B동 4층 G.X룸	5만 원(1개월)
한국무용	목	15:00-15:50	김운자	4층 다목적실1	5만 원(1개월)
왕초보 라틴	화	11:00-11:50	김복옥		
왕초보 모던(왈츠)	목	11:00-11:50	최찬영		
지르박&블루스 부부반(커플)	미정	3팀 이상 시 개강	박강현		
1:1 댄스 개인 교습	개별	시간 조정	최현우(문의 *5514)		50만 원(10회)

학습					
실생활 스마트폰	화(월 3회)	10:00-11:00	조만하	4층 다목적실2	무료
스마트폰 활용(SNS, 생활 애플리케이션)	화·목	09:00-10:20	장정현	A동 7층 프리지아2	15만 원(3개월)
컴퓨터 활용(블로그 운영)		10:30-11:50			
말문이 트이는 영어 회화(A)	화·목	14:30-15:20	조영숙 회원(재능 기부)	A동 7층 다알리아2	6만 원(3개월)
왕초보 영어 회화		16:00-16:50			
말문이 트이는 영어 회화(B)		17:30-18:20			
말문이 트이는 영어 회화(C)		20:00-21:00			
말문이 트이는 일본어 회화(초급)	월·수	19:00-20:00	고영자 회원(재능 기부)	4층 다목적실3	
말문이 트이는 일본어 회화(중급)	월·금	10:00-11:30			

예술					
신나는 노래 교실	목	10:00-11:00	이상혁	4층 다목적실2	무료
문향루(서예 동호회)	수	16:30-18:00	이병태	A동 7층 다알리아2	
예술 치유반		14:30-15:20	황인옥	4층 다목적실2	
토요 남성 통기타(단체)	토	15:00-17:00	안승제	4층 다목적실2	5만 원(1개월)
1:1 통기타 개인 교습	개별	시간 조정		4층 다목적실2	4만 원(1개월)
예술 치유 미술 중점반	수	15:30-17:30	황인옥	4층 다목적실3	8만 원 (재료비 별도/월)
그림 교실(서양화)	토	19:00-21:00	이은규	A동 7층 다알리아2	8만 원(1개월)
도예반 '마음을 빚다'	월	15:00-17:00	이재철		12만 원 (기본 재료비 포함/월)

THE CLASSIC 500 동호회

더 클래식 500 하모니 합창단

전문가의 지도 아래 아름다운 화음을 자아내고 공연을 통해 자신감을 키우는 동호회

- 일시 월요일 15:45-17:20
- 회비 연 24만 원

바둑

바둑 대국을 통해 정신 수양은 물론 활기와 즐거움을 더하는 동호회

- 일시 금요일 15:00-18:00(바둑대회: 반기별 1회)
- 회비 연회비·입회비 각 10만 원

속녀회

골프를 좋아하는 여성 회원만을 위한 동호회

- 일시 매월 셋째 주 수요일(혹서기·혹한기 휴회)
- 회비 연회비·입회비 각 10만 원

댄스 스포츠

왈츠, 라틴, 자이브, 기본 스텝 등으로 건강 증진과 친목 도모

- 일시 월·화·목·금요일 09:00-09:50(주 4회)
- 회비 연 40만 원

문향루(서예)

묵을 통해 정신 수양을 도모하는 동호회

- 일시 수요일 16:30-18:00
- 회비 무료

인터넷

인터넷을 통해 유용한 정보를 주고받는 동호회

- 일시 별도 공지
- 회비 무료

자원봉사단

후원과 자원봉사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자원봉사단

- 일시 별도 공지
- 회비 무료

* 모든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규 가입 문의 | 02-2218-5000

2018년 하반기 이벤트

7 July

SUN	MON	THE	WED	THU	FRI	SA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주 차 제5회 한여름 야외영화 축제
18일 st1 <드림걸즈>

4주 차 제5회 한여름 야외영화 축제
25일 st2 <라라랜드>

8 August

SUN	MON	THE	WED	THU	FRI	SA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2주 차 10일 가을학기 신규 프로그램 접수 마감

THE CLASSIC 500

PENTAZ HOTEL FITNESS CLUB



더 클래식 500 펜타즈 호텔은 최근 해외 유명 운동선수와 셀럽들이 건강과 미용을 위해 사용하는 '크라이오테라피(Cryotherapy, 냉동요법)'를 피트니스 클럽에 도입했습니다. 몸의 면역 기능을 활성화해 운동 후 회복, 피부 미용, 다이어트 및 전신 건강에 도움을 주는 냉각 사우나로, 초저온(-110~-170℃) 환경에 전신을 단시간(3분 이내) 노출시켜 혈액순환을 도와 몸속 노폐물과 피로 물질을 제거하고 산소와 영양분 및 호르몬을 전신에 공급합니다.

크라이오테라피 효과

- ① 혈액순환 촉진
- ② 콜라겐 생성
- ③ 운동 능력 향상
- ④ 다이어트
- ⑤ 근육 및 관절의 염증 감소
- ⑥ 면역력 개선 및 노화 방지
- ⑦ 스트레스 완화

문의 02-2218-5976

FOR YOUR HEALTHY LIFE



No.1 시니어 브랜드 <THE CLASSIC 500>이 비즈니스 파트너를 찾습니다.

'THE CLASSIC 500'은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소셜 리더 그룹의 'Private Senior Society'입니다. 최첨단 웰빙 시스템을 갖춘 주거 공간과 건국대학교병원의 교수진으로 구성된 메디컬 서비스, 레스토랑과 피트니스 클럽 등 최고급 부대시설로 이루어진 'THE CLASSIC 500'은 명실공히 국내 최고의 시니어 브랜드입니다.

'THE CLASSIC 500'은 이미 KAIST, LG전자, KEB하나은행, 롯데백화점, 하나투어, 모두투어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과 업무 제휴를 맺었습니다. 'THE CLASSIC 500'은 음식, 제품,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와의 협업을 환영합니다. 'THE CLASSIC 500'은 파트너사와 함께 시니어 브랜드를 완성하기를 기대합니다.

문의 02-2218-5546

THE CLASSIC 500

PENTAZ HOTEL FITNESS CLUB

ADDRESS 90 Neungdong-ro, Gwangjin-gu, Korea 05065

TEL +82-2-2218-5800

WEBSITE www.pentaz.co.kr



동아일보 주관
2016 한국 시니어 산업 대상
프리미엄 시니어타운 부문

THE CLASSIC 500
PRIVATE SENIOR SOCIETY

당신을 위한 새로운 삶의 시작 프라이빗 시니어 소사이어티 더 클래식 500

이 시대 최고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커뮤니티,
24시간 메디컬 케어 서비스, 6성급 호텔을 뛰어넘는 시설과 감동의
서비스까지 이제껏 당신이 경험하지 못한 감동적인 삶이 시작되는 그곳,
프라이빗 시니어 소사이어티 '더 클래식 500'.



문의 : 02 - 2218 - 6000

위치 :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90(구 자양동) 더 클래식 500

www.theclassic500.com